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에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안 강 태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방방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본부 제42차 정기총회

지난 3월24일 열린 본부동창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안강태 수석부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이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안 신임회장은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장직도 맡고 있기 때문에 동창회와 장학회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탄력적으로 수행될 전망이다.

1억8천만원 예산안 승인

오강욱 (10회) 등 임원 7명· 흠커밍유공 등 7명 공로패

본부동창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추무홀에서 김근준 고문(1회)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정행권 본부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내빈 소개에 이어 국민의례·교가제창·용마대상을 비롯한 유공동문 표창·회장 인사·권명미 경남고 교장과 김형희 재경 고문 축사·결산보고와 예산안 승인·제29대 안강태 회장 선임·정 회장 퇴임사와 신임회장 취임사·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김형석 사무국장·16회).

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42차 정기총회는 제28대 집행부를 중간평가하는 날로,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에 대해 가차없이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서 유공자 표창에서 박재상 동문(22회·부회장·천일고속 대표이사)에게 동창회 최고의 상인 용마

신임회장 안강태 (11회) 선임 올해 용마대상 박재상 (22회) 영광

대상(부상-순금열쇠와 부부 동남아 여행 항공권)을 수여했다. 이어 본부 임원으로 10년이상 활약한 오강욱·강진평 자문위원(이상 10회)과 오완수(11회)·이상택(13회)·송규정(16회)·김길제(18회)·이용흠 부회장(19회)에게 장기헌신 공로패(부상-금배지)를, 이성인(16회) 마산·창원회 자문위원과 양동건(18회) 울산회 고문에게 지역발전 유공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어 김길제 강정일(이상 18회·40주년), 이원철 오현석(이상 28회·30주년), 김형석 동문(38회·20주년)에게 흠커밍데이행사 유공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안강태 본부 신임회장

총회는 2004년 결산보고에서 △본부운영(규모 1억 4,414만6,871원) △희보운영(규모 3,140만 1,456원) △용마의 밤(규모 4119만3,759원) △기별야구대회(규모 1,408만4,578원) 등을, 2005년 예산안에서 △본부운영(규모 1억8,217만6,541원) △희보운영(규모 5,007만2,316원) 등을 승인했다. <2면에 기사·표창자 명단 넘김>



본부 이사회·회장단회의

정기총회 상정 주요의안 승인 용마대상 등 유공자 표창 의결

본부동창회 회장단회의가 지난 3월15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 연회실에서 열렸다.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제42차 정기총회 운영계획안 확인에 이어 포상위원회가 앞서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심사에 들어가 선정된 제12회 용마대상 수상자(1명)·본부 집행부에서 10년이상 활약한

임원(7명)·흠커밍축제 헌신자(8명)·지역회 발전 유공자(2명) 등에 대한 공로패 수여 제청안을 의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28일 오후 6시30분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본부 올해 첫 이사회(2004년 예정산이사회)는 3월 24일 본부 제42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결산보고 및 예산안과 안강태 수석부회장(11회·용마장학회 이사장·대선조선 대표이사)의 제29대 회장 선임안, 올해 치를 기별대항 낚시·등산·테니스·바둑·골프·야구대회와 용마의 밤 등 본부 주관의 각종 행사 일정 등 주요의안을 의결했다.

용마대상 수상 박재상 동문 공적



본부동창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제12회 용마대상을 수상한 박재상 동문

제12회 용마대상을 수상한 박재상 동문(22회·천일고속 대표이사·사진)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40년간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있다.

박 동문은 지난 1960년대 중반부터 모교 야구감독(2명)의 급료를 지원하면서부터 모교와 동창회 사랑의 꽃을 피웠다. 이 같은 지원책은 십수년간 지속되었다.

박 동문은 본부동창회 부회장직을 13년간(92년 5월~현재),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직을 9년간(96년~현재) 각각 맡고 있다.

본부 부회장 경우 역대 회장을 차례로 보필하면서 조직을 굳건한 반석 위에 구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솔선수범해왔다.

용마장학회 출범 시 기금 3천만 원을 출연함과 동시에 이사를 맡아 오늘에 이르면서 장학사업의 내실화를 지향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동창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부회장 13년·장학회 이사9년 재임
본부장학회 설립기금 3천만원 출연
모교 야구회장 때 수천만원 쾌척
수년간 야구감독 2명 급료 지원

특히 박 동문은 3년간(94년 3월~97년 2월) 모교 야구후원회장직을 맡아 매년 1천만 원씩 공식 지원하면서 때때로 알게 모르게 특찬금을 쾌척, 모교야구 중흥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했다.

그리고 2년간(96년 3월~98년 2월)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을 맡아 후배들의 학력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교직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심혈을 쏟았다. 박 동문의 부친(박남수 천일그룹 회장)은 지난 1965년부터 7년간 경남고 육성회장직을 맡은 바 있어 이 같은 '학교사랑'은 부친자전(父傳子傳)을 이뤘다.

박 동문은 지난날 모교 야구감독의 급료를 지원했던 일이 인연이 되었음인지 199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경야회 고문을 맡아 조직의 응집력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 동문은 (주)천일여객 사장·(주)천일고속 사장·(주)부산서부터 미널 사장 등 전국을 커버하는 여객운송사업을 펼치고 있다.

온천장 외식요리 전문점

요리의 맛과 품격이 느껴지는 금정산/국수한그릇은 온천장 허심청 후문에 있습니다!



보쌈/낙지볶음 2F

국수 전문점 1F

전용주차장 12대 동시 주차

선·후배 동문님들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수백 (23회)

예약문의 051-556-9911

취임사

제29대 본부동창회 회장 안강태

제11회 · 용마장학회 이사장 · 대선조선 대표이사

약동의 봄을 맞아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본부동창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역대 회장님들이 일궈 놓은 업적들을 거울삼아 조직기반의 공고화와 동문·가족들의 유대증진, 역량결집을 도모하는 각종 행사의 활성화,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의 전향적 추진 등을 이뤄내는 조타주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상황에 따라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난조를 겪을 수 있으리라는 예측도 합니다. 그러나 난관을 겪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면서 극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동창회의 원동력인 용마가족들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직기반의 공고화를 지속시키는 데 지혜를 모으고 열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의 첫걸음으로 집행부와 이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집행부가 아니라 행동하는 강한 집행부로, 통과예제적 이사회가 아니라 동창회 최고의결기구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는 이사회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동기회를 비롯해 국내외 각 지역회와 직능회 등이 항상 각자의 신선하고 진취적인 역량을 본부동창회에 직결시켜주어야 합니다.

본부 임원진과 부회장인 국회의원동문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약 위한 '용마의 띠' 구축을

문화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문들, 각 동기회 회장단과 지역·직능회 회장단 등이 정기총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적극 출석하는 열성을 보여줌으로써 집행부와 이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 차원 높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동창회의 기반이 견실해지고 용마가족들이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다수 국회의 원동문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존립기반이 우리의 모교와 본부동창회가 있는 '부산'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숙원사업인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대 본부 회장님들은 이 사업을 위해 심혈을 쏟아왔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미완의 소망'으로 해를 넘겨왔습니다. 담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기획팀을 새로 구성하여 예산확보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태스크포팀을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부동창회의 수년에 걸친 막대한 미수금(3억5천여만원)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 운영재원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회비가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같은 누증현상은 조직활성화의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동창회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관계동문 여러분의 성원이 절실하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한 시스템강화와 장학사업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학력증진 등에 관심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 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회장만이 푸는 과제가 아니라 용마가족 모두의 몫임을 통찰하여 동창회 도약을 위한 '용마의 띠' 구축에 배전의 성원을 쏟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행운을 누리십시오.

모교·동창회 발전 유공 표창자 공적 내역

구분	성명	회	직책	주요 공적 내역
용마대상	박재상	22	(주)천일고속 대표이사	본부 부회장(13년) · 용마장학회 이사(9년) · 경야회 고문(13년)으로 활동 중이며, 모교야구후원회 회장(3년) · 경남고 학교운영위원(2년) 역임. 십수년간 모교 야구감독 급료 지원
공로패 *본부임원 10년이상 현신유공	오강욱	10	(주)남선곡산 회장	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본부 부회장(14년) · 동기회장 등 역임
	강진평	10	부광산업(주) 대표이사	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본부 부회장(6년) · 감사(4년) · 동기회장 등 역임
	오완수	11	대한계강(주) 회장	본부 부회장으로 14년간 활동 중이며, 동기회장 등 역임
	이상택	13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사장	본부 부회장(14년) · 재경동창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재경동창회 회장 · 동기회장 역임
	송규정	16	(주)원스틸 대표이사	본부 부회장(14년) · 동기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동기회장 등 역임
	김길제	18	(주)MSC 대표이사	본부 부회장(12년) · 동기회 ·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동기회장 등 역임
공로패 *홀카밍행사 축제유공	이용흠	19	(주)일신종합설계 회장	본부 부회장(14년) · 용마장학회 이사(4년) · 동기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동기회장 등 역임
	김길제	18	(주)MSC 대표이사	본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동기회장 시 모교방문 40주년행사 성공적 개최
	강정일	18	변호사	재경 동기회장 시 모교방문 40주년행사 성공적 개최
	이원철	28	변호사	동기회장 시 모교방문 30주년행사 성공적 개최
	오현석	28	(주)코애타크 대표이사	재경 동기회장 시 모교방문 30주년행사 성공적 개최
	김형석	38	신라대 공대 교수	동기회장 시 모교방문 20주년행사 성공적 개최
공로패 *지역회 발전유공	이성인	16	동마산병원장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마창회 회장 · 경인회 회장 등 역임
	양동건	18	(주)유화에너지 대표이사	울산지역동창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울산회 회장 역임 동창회관 마련과 동문의 날 제정 등에 크게 기여

<1면 '본부 정기총회' 받음>

이러 정행권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2년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고 도중하차 하게 되어 용마가족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한량 없다"며 "비록 회장직 임무는 끝까지 지키지 못했으나 동문으로서의 여생 동안 배전의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안강태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모교와 동창회를 전국의 명문대열에 서게 하는 데 심혈을 쏟으신 역대 회장님들의 뜻을 받들어 보다 진취적이고 강력한 집행부가 되게끔 노력하겠다"며 "조직활성화와 역량결집을 통해 우리 동창회가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용마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개회선언에 이어 소개된

동문은 다음과 같다.

김근준(1회) 정소영(6회) 조대제(7회) 박동열(8회) 고문, 최한성(9회) 강진평(10회) 자문위원, 안강태(11회)수석부회장과 김영대(14회) 송규정(16회) 김길제(18회) 남진현(19회) 박재상 박홍조(이상 22회) 박기욱(23회) 박상호(26회) 이원철(28회) 이진호(34회) 정운성(35회) 부회장, 방봉우(10회)감사, 권명미 경남고 교장, 김경희(9회) 재경 고문과 박호문(15회) 사무국장, 김인호(11회) 전 부회장, 문정수 전 부산시장과 김성찬 전 경남고 교장(이상12회), 김용규(10회) 최득호(11회) 전 본부 사무국장, 권오균(21회) 경총회장과 이용규(22회)경야회장, 양동건(18회) 울산지역회 고문, 김현기(21회) 마산·창원지역회 총무와 김병화(35회) 전남동부지역회(여수

순천 동광양 광양 구례 등지) 총무.

여러 동창회서 축하화환

한편 축하화환은, 부산시 중·고 재경동창회 협의회(회장 김경희 재경고문) · 동래고동창회(회장 김병규) · 동아고동창회(회장 김길출) · 부경고(옛 경남상고) 동창회(회장 노종현) · 부산상고동창회(회장 양원석) · 진주지역 동창회(회장 최정림 · 21회) · 이재웅 국회의원(26회 · 축전 포함)등이 보내왔다.

<바로잡습니다>

회보 제351호 (2005.1.28) 2면에 실린 본부동창회 임원직 명단 중 부회장의 최거훈 '(31회)'는 '(30회)'로 바로잡습니다.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각 동기회 · 직능회 · 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The advertisement section features several overlapping images of magazine pages. The central text promotes advertising in the magazine as a way to boost business and strengthen capabilities. Surrounding this text are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one for 'Little Campus' (리틀캠퍼스) with the phone number 051-567-3333, and another for 'Lixu' (리쿠) with the phone number 051-567-3333. There are also smaller ads for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영어학원' and '제37외통기회 임원 명단'.

8,144만원 규모 예산안 승인

용마장학회 이사회...신임 이사장 안강태(11회)

본부 용마장학회는 지난 2월24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 연회실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결산보고(규모 8,988만7,773원)와 예산안(규모 8,144만 6,143원)을 승인했다.

박동열 이사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임원 개선을 통해 안강태 이사(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를 신임 이사장(임기 4년)으로, 한정준(11회)·남기용(12회)·박찬호(15회) 동문을 신임 이사(임기 4년)로 각각 선임했다. 또 박종구(5회)·이용흠(19회)·박재상(22회) 이사와 방봉우(10회)·김태우(27회) 감사를 각각 유임시켰다.

이에 따라 장혁표(8회)·조길우(16회)·서정승(17회)·김원주(22회) 이사는 임기 2년을 남겨 놓고 있다.

용마대상·공로패 표창 포상위원회, 후보 심사

본부동창회 포상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 연회실에서 오는 24일 본부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수여할 제12회 용마대상 후보와 공로패 수상 후보 등에 대한 공적내역을 심사했다.

이날 포상위원회는 정행권 위원장(9회·본부 회장)을 비롯해

오강욱(10회·자문위원)·안강태(11회·수석부회장)·남기용(12회·부회장)·송규정(16회·부회장)·김형석(16회·본부 사무국장)·서정승 위원(17회·부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후보 공적 심사결과 △제12회 용마대상은 박재상(22회) 동문을 △공로패 경우 10년 이상 장기임원으로 활약 중인 오강욱(10회) 강진평(10회) 이상자문위원 오완수(11회) 이상택(13회) 송규정(16회) 김길제(18회) 이용흠 동문(19회) 이상 부회장을, 지역회 발전유공으로 이성인(16회)·마창희 자문위원 양동건 동문(18회)·울산회 고문을, 홈커밍데이 행사 유공으로 김길제 강정일(이상 18회·40주년) 이원철 오현석(이상 28회·30주년) 김형석 동문(38회·20주년을 각각 선정했다.

본부 용마장학회 임원·임기 현황

구분	성명(회)	임기	참고
이사장	안강태(11회)	2003. 02. 05 ~ 2007. 02. 04	신임
이사	박종구(5회)	2005. 01. 20 ~ 2009. 01. 19	유임
"	장혁표(8회)	2003. 02. 05 ~ 2007. 02. 04	계속
"	한정준(11회)	2005. 01. 20 ~ 2009. 01. 19	신임
"	남기용(12회)	2005. 01. 20 ~ 2009. 01. 19	"
"	박찬호(15회)	2005. 01. 20 ~ 2009. 01. 19	"
"	조길우(16회)	2003. 02. 05 ~ 2007. 02. 04	계속
"	서정승(17회)	2003. 02. 05 ~ 2007. 02. 04	"
"	이용흠(19회)	2005. 01. 20 ~ 2009. 01. 19	유임
"	박재상(22회)	2005. 01. 20 ~ 2009. 01. 19	"
"	김원주(22회)	2003. 02. 05 ~ 2007. 02. 04	계속
감사	방봉우(10회)	2005. 02. 28 ~ 2007. 02. 27	유임
"	김태우(27회)	2005. 02. 28 ~ 2007. 02. 27	"

박성조(9회) KBS 해외동포상 수상

'세계적 석학'으로 존경받고 있는 박성조 동문(9회·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정교수·사진)은 지난 3월 4일 제13회 KBS 해외동포상(인문사회 부문)을 수상,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했다. 이 상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지키며 인류복지증진과 문화창달에 크게 이바지한 한국인에게 수여하고 있다.

박 동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 부르즈버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60년)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정치학박사 학위(62년)를 받았고 동양인 최초로 독일대학 내 사회과학분야 교수자격시험을 통과(73년)해 78년부터 베를린자유대학 정교수(C4)로 재직하고 있다.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존경받고 있는 박 동문은 74권의 저술과 300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보훈대학



베를린자유대 정교수 활약 한국인 첫 정치학 박사 학위 동양인 처음으로 독일 대학 내 교수자격시험 통과한 수재 저술 74권·논문 300여편 발표 박사 40명·석사 200여명 배출

과 베를린자유대학 정교수로 재직하면서 40명의 박사와 200여 명의 석사를 배출했으며, 독일의 유력기업과 독일 연방정부 관료 등 핵심 인사들을 배출했다.

박 동문은 베를린자유대학 내에 한국화 강좌 개설과 한국학 연구센터 신설, 서울대와 통일문제 공동연구 추진(세미나 12회 개최), 유럽아시아경영학회·한국유럽연구협의회·베를린자유대학 이문화센터(소장) 등 설립-모범적 운영, 전자학술잡지 편집장을 맡아 이문화 화합연구를 통한 세계적 지위 확보,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지의 자동차회사 자문역을 통해 국제자동차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학자로서 한국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보훈대 부교수 △이 대학 동양학부 학장 △베를린자유대학 정교수 △중국연변과기대 부총장 △독일 국제사이버대 총장 △세르비아 메가트랜드 응용과학대 외국인 총장 △세르비아 교육성 금상·학술대상 등 다수 수상.



봄을 기다리는 우정은 꽃잎이 되어... 앞줄 왼쪽부터 배동준(18회)·이성욱 은사·고재혁(13회)·가문데 줄 왼쪽부터 김창길(22회)·정월남(21회)·부회장·구본춘(23회)·이현정(14회)·이익홍(14회)·여운석(17회)·오준상(14회)·이창건(28회)·송무, 뒷줄 왼쪽부터 임대성(29회)·오승석(43회)·원대근(20회)·이영민(17회)·백기덕(18회)·회장·김호영 동문(21회)

캐나다 용마가족들 화합 재충전

토론토지역동창회 정기총회 겸 신년회 잔치

캐나다 토론토지역동창회는 지난 2월5일 오후 7시 시내 토담골에서 2005년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열었다.

백기덕 회장(18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이성욱 은사 내외분을 비롯해 동문 16명과 가족 8명 등 모두 26명이 참석했다.

제1부 총회는 사업보고·각자 자기 소개·회장 인사·은사님 덕담 갖든 격려사에 이어 예결산안을 승인했고 여름야유회 등 올해 행사계획안을 통과시켰다(사회:이창건 총무·28회).

백기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용마가족들의 화합과 결속은 동창회 도약의 밑알"이라며

"힘든 해외생활이더라도 자주 만나고 서로 격려하며 도와가면서 살자"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역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문은 모두 52명이라고 보고한 후 병환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의 근황

을 일일이 알려줬다. 앞서 상견례에서는 구본춘 동문(23회) 부부가 13년 만에, 임대성 동문(29회) 부부가 20년 만에 각각 모습을 드러내 마치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살아서 돌아온 듯한' 놀람과 감동을 함께 연출하여 환영의 박수세례가 한동안 장내를 수놓았다.

제2부 신년회 잔치는 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우정의 꽃을 피웠다.

제14회재경회 이사회

올해 운영계획안 추진 수석부회장제 총회에 상정

제14회재경동기회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나무골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었다.

김영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25명의 이사들이 참석, '04년 회계결산 및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05년 운영계획안을 추진했다.

한편 수석부회장제 신설문제는 다음 정기총회 의제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본래의 참마음으로 살아가자"

살며 사랑하며

신도수

재회·이호 德山·원불교 법명 德宗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세상을 만날수록 '본래의 참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절실하다.

우리는 각자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부리고 죄와 복을 지으며,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게 된다. 이는 곧 인과(因果)이다.

'콩 심은 곳에 콩 나고, 팥 심

은 곳에 반드시 팥이 생성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섭리와 같은 것이다.

마음을 선하게 배품으로써 공덕(功德)을 짓게 된다. 그런데 공덕(功德)을 지어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마음을 선하게 배품다'는 것이야 쉽지만 실제로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본래 사람은 누구든지 착하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다. 그러나 본래의 참마음을 잘 지키기란 쉽지 않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이 앞선다. '좋다', '싫다' 하는 분



별심(分別心)이 일어나 본래의 참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분별심을 버려야만 본래의 선(善)한 참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분별심이란 눈 귀 코 혀 피부 등 오근(五根)과 느낌을 합친 육근(六根)을 통해서 일어난다. 때문에

이 육근에 얽매어져 이리저리 마음이 끌려다니지만 앓는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본래의 참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부리는데,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죄의 괴로움에 묻히게 된다.

마음속으로 선하고 착한 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 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올해에 자기의 주관을 분명하게 세워 악한 것이 아무리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더라도 못 들은 척해야 한다. 반면에 선한 것은 내 마음에서 그대로 잘 자라도록 복돋아주어야 한다. 이는 본래의 참마음이 즐겁고 복된 날들을 가꾸어주기 때문이다.

용마가족 여러분, 언제나 행운을 누리시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결속하는 마음을 더욱 응집합시다.

재경동창회 2005년 신년회

‘자랑스런 용마’ 대상 박종구 (5회) 등 6명 수상

배병우 (7회) 등 35명 용마상
우성하 (20회) 등 5명 공로상

재경동창회 2005년 신년회가 지난 2월25일 오후 7시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신일 회장(15회·세종회장)주재로 열렸다.

신년회는 국민의례·교가제창·천신일 회장 신년사·정행권(9회) 본부회장 축사·정동식(1회) 재경 명예회장 격려사·‘자랑스런 용마상’ 시상·축배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사회: 박호문 사무국장·15회).

이날 ‘자랑스런 용마’상 시상에서 대상은 박종구(5회·삼구

롭 대표이사 회장) 박희태(11회·국회부의장·수상자 대표인사) 김성완(13회·한양대 공대 석좌교수) 권근술(14회·남북어린이재단총무회 이사장) 안국정(17회·SBS 대표이사 사장) 양승태 동문(20회·대법관) 등 6명이 수상했다.

용마상은 배병우(7회) 이환근 박진(이상 14회) 오봉석 남갑순(이상 15회) 박홍수 정홍원 이봉암(이상 17회) 이재환 박종구(이상 18회) 이근식(19회) 노기태 성낙합(이상 20회) 오거돈 정상철 이종상(이상 21회) 이만우(22회) 장수만 홍종기 강상대(이상 23회) 허구연 노상훈(이상 24회) 최철국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김원형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제11회 '05장기총회. 원내 사진·현정춘 신임회장.

(25회) 박경재 남인희 이재웅 김석득(이상 26회) 공민배 김홍창(이상 27회) 배승환 장석일(이상 30회) 유기준(32회) 박규병(35회) 후보훈(36회) 조경태 동문

(40회) 등 35명이 받았다. 공로상은 우성하 윤우성(이상 20회) 이재동(23회) 정기조(29회) 김영준(32회) 동문 등 5명이 수상했다.

재경제12회 새 회장 안용득

제12회재경동기회는 지난 1월 25일 서울 팔레스 호텔 로얄볼룸(1층)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안용득 동문(변호사·전 대법관·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규만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총회는 권봉원 변재용 김영복 조상현 윤형규 차만도 부회장을 유임시켰고, 박상도 김영수 정수복 동문을 신임 부회장으로, 임성삼 동문을 감사로, 최경균 동문을 총무로 선임했다.



부산 중구 대청동 고공관식 뷔페에서 열린 제16회 정기총회에서 동문들이 신임회장 이맹립 동문(중앙)을 예우한 채 축배를 들고 있다.

제16회 신임회장 이맹립

제16회동기회는 지난 3월24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대청동 고공관식뷔페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이맹립 동문(용마부동산 대표·원내)을 선임했다.

김정균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종국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회장 선출에 이어 이경일 감사·강종국 사무국장·최정일 간사를 각각 유임시켰다. 부회장과 이사 선임은 이 신임회장에 위임했다.

이맹립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기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쥐 감사한다”며 “한 차원 높은 화목과 결속력이 과시되는 동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회 노래자랑 “앵글” 연발

한편 동기회는 앞서 지난 2월2일 중구 동광동 부산관광호텔 연회실에서 부부동반 36명(부인 6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수놓아진 신년회를 열었다.

이날 차상영(100만원) 양성민 강동관 김정균(이상 각 50만원씩) 이재연 손송방 채경일 김미륵 동문(이상 각 10만원씩)이 특찬금을 쾌척했다.

‘동창회 발전 활력소’ 재확인

경총회 2005년 정기총회...제4대 회장 권오균 (21)



경총회(각 동기회 총무들의 친목회)는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고래와 참치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에 권오균 동문(21·한국에어로테크 부산지사장·사진)을 선임했다.

박청홍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권오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직활성화와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촉진하고 본부동창회와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동창회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활력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제24회 신임회장 최승국

제24회동기회는 구립 23일 오후 6시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피어룸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어 최승국 동문(영진상역 대표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영환 회장이 주재한



부산진구 부전동 사미현서 열린 제34회 동기회 2005년 정기총회.

제34회 새회장 이수형 본부 부회장 이진호 추천

제34회동기회는 지난 1월 28일 부산진구 부전동 사미현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이수형 동문(미진C&C 대표·원내)을



총회는 김도현 총무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총회는 최승국 신임회장이 임명제청한 ‘황성동 총무안’을 가결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웅철 회장(감사패 수상)이 주재한 총회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본부 부회장으로 이진호 동문(동광개발 대표이사)을, 본부 이사로 이수형 신임회장과 최웅철 직전회장을 추천했다. 또 서부회장에 이상도, 중부회장에 권병웅, 남부회장에 이성엽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제48회 신임회장 송지훈



제48회동기회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 서구 동대신동 삼익호텔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송지훈 동문(AIG생명보험 교육팀·사진)을 선출했다.

박주용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송지훈 신임회장은 다년간 동기회 살림살이를 맡아 온 천봉기 총무를 유임시켰다.

제18회 새 회장 김사권



제18회동기회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유원골든 O/T 1913호 동기회 사무실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사권 동문(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남두진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이 같이 의결했다.

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소외된 동문들이 있다면 이들을 감싸안아 동기회의 역량 결집의 활력소로 삼자”고 말했다.

△회장=김사권

△부회장=홍우재 김만근 등 16명

△감사=김종철 홍광희

△총무=오수명

제25회 신임회장 손기천

제25회동기회는 지난 3월 4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뷔페에서 2005년 정기 총회를 열고 손기천 동문(인제약국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진우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을 뽑은 후 수석부회장에 송정규 동문(도선사협회 회장)을 선임했고 여성 조 옥동훈 총무를 유임시켰다.

제26회 성재일 회장 연임



제26회동기회는 지난 1월26일 오후 7시 무역회관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성재일 동문(성화철강 대표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추창구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회무보고에 이어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총회는 회장을 새로 뽑고 이어 수석부회장에 김태년, 감사에 최성수, 총무에 정승국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제31회 남철우 회장 유임



제31회동기회는 지난 1월28일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근처 해암 뷔페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고 남철우 회장(법무사·사진)과 강신호 감사를 유임시켰다.

남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총회는 동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정남 부회장을 수석 부회장으로, 안중수 총무 후임으로 새 총무에 안기수 동문을 각각 선임,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도약을 결의했다.

제33회 신임회장 이호인

제33회동기회는 지난 3월 3일 부산 동구 범천동 알리안즈생명빌딩 23층 제일뷔페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이호인 동문(한창정보컴질방 대표)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배종현 회장이 주재한 총회(정기이사회 겸합)는 33명이 참석, 김법영 김진용 송종현 고문을 재추대했고 배종현 직전회장을 고문으로 새로 추대했다.

△회장=이호인

△부회장=이윤조(수석)

△이순환 김재원 박영배 김재

선

△감사=민병현 이 훈

△총무=장정석 정영환.

권오현(1회) 명예 언론학박사 학위 취득



권오현 동문(1회·본부고문·사진)은 지난 2월 22일 경성대 졸업식에서 명예 언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권 동문은 부산일보 편집국장·주필·대표이사·부산도시가스 상임고문·경성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정제(12회) 장관출신 소설가로 등단



조정제 동문(12회·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장·사진)은 '장관출신 소설가로' 변신,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민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 동문은 최근 문학공간에 '은파를 넘어서'라는 단편소설이 추천됐다.

김준철(12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이사장



김준철 동문(12회·사진)은 최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이사장(임기 3년·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에 취임했다. 한국해양대 항해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협성해운(주) 검정부장 등을 거쳐, 1976년부터 협성검정(주)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안국정(17회) SBS대표이사 선임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PD' 안국정 동문(17회·사진)이 SBS대표이사로 취임, 방송공익성과 경영효율성의 상생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PD출신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사령탑이 된 안 동문은 지난 1983년 KBS '특별생방송-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제작, 10만여 이산가족들이 138일 동안 눈물로 지새게 해 한국 방송사의 신기원을 이루게 했던 장본인. 안 동문은 이후 TV본부장과 편성본부장 등을 거쳤고 편성본부장 때 KBS 위성방송 개국을 지휘했다. 1998년 8월 SBS TV제작본부장으로 스카우트 되었고 편성본부장과 대표이사 부사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SBS신사옥 이전과 디지털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이주상(22회) 국세청장 발탁

국세행정의 기획·조사통으로 불리는 이주성 동문(22회·사진)은 최근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경제검찰'이라는 국세청의 사령탑에 올랐다. 이로써 용마국세청장은 문민정부 당시 추경석 동문(8회·전 건설교통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이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갈' 정도로 매사에 신중하여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는 이 동문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다. 이 동문은 동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16회)에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본청 조사1과장·중부청 조사1국장·서울청 조사2국장·부산청장·본청 기획관리관 및 차장을 역임했다.

신일수(14회) 국제극예술협 한국본부 회장



신일수 동문(14회·한양대 교수·사진)은 최근 국제극예술협(III) 한국본부 회장에 선임됐다.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신 동문은 미국에서 다년간 연극·영화예술분야를 연구하고 귀국, 모교 등에서 후학을 지도해왔다. 신 동문은 한국연극학회 회장과 극단 한양대퍼포리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

박종구(18회)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에



박종구 동문(18회·사진)은 최근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에 취임했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경찰에 투신, 경기 용인·고양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교통·보안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 동문은 지난 3월 3일 개국한 'TV서울'(케이블TV)을 시발로 본격적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20회) 대법관으로 영진



양승태 동문(20회·사진)은 최근 대법관으로 영진했다. 특허법원장 재임 중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양 동문(사시 12회)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서울민사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부산지법원장·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허범도(22회) 산자부 무역위 상임위원



허범도 동문(22회·사진)은 최근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이끄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허 동문은 행정고시 17회에 합격,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산자부 중소기업국장·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산자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조운제(24회) 주영국 한국대사관 대사



조운제 동문(24회·사진)은 청와대 대통령 경제비서관 재임 중 최근 주영국 대사로 부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조

동문은 재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경제분석관·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서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박인국(25회) 주제네바 차석대사

박인국 동문(25회)은 주 쿠웨이트 대사 재임 중 최근 주 제네바 차석대사(군축·인권 담당)로 발탁됐다.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박 동문은 외무고시(12회)에 합격한 이래 주뉴욕영사관 영사·외무부 유엔 2과장·주벨기에 참사관·대통령 비서실 국제안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남인희(26회)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남인희 동문(26회·사진)은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재임 중 최근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진했다.

이종찬(20회) 춘천지방법원장 영진

최근 단행된 대법원의 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이종찬 동문(20회·사진)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영진한 것을 비롯해 7명의 판사동문이 자리를 옮겼다. 이종찬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 15회에 합격, 사법연수원(5기)을 거쳐 서울중앙법원 판사·의정부지원 부장판사·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기석 동문(26회)은 대전지법



남 동문은 서울대와 경희대를 졸업했으며 기술고시(13회)에 합격한 후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등을 역임했다.



수석부장판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탁됐다. 박성철 동문(29회)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에서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영진했다. 홍창우 동문(41회)은 의정부지원 판사에서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김운호 동문(41회)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에서 서울고법 판사로 영진했다. 백승엽 동문(43회)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에서 울산지법 판사로 발탁됐다.



(25회)이 지난해 6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다시 돌아온 후 민정비서관으로 재기용됐다.

- 서기석(26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 조병현(2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 박성철(29회) 부산고법 부장판사
- 홍창우(41회) 서울가정법원 판사
- 김운호(41회) 서울고법 판사
- 백승엽(43회) 울산지법 판사

수석부장판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영진했다. 조병현 동문(28회)은 대전고법

이호철(31회) 청와대 민정비서관 룰백

이호철 동문(31회·사진)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이 동문은 청와대를 떠났던 문재인 수석

제8회

金在汎=(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1108 경보 2차 아파트 202동 801호, 055-366-2283

林金植=(개업) 2월 15일 장남 이 중국 북경식 청기와사브사브 개업, 051-324-9015~6

崔載赫=(자택이사)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쌍용아파트 506동 802호, 031-703-7629

제9회

黃永善=한림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 1동 1491-1 동주빌딩 14층, 051-506-7227, 011-595-7227

제10회

元容致=3월26일 강남웨딩문화원 6층 휘가로홀 아들 철희군 결혼, 02-2296-9927

제11회

姜龍大=1월 16일 아들 태우군 결혼, 051-644-8088, 011-9800-8813

金達經=1월 15일 모친 별세, 051-514-0102, 011-553-2606

金東基=1월 9일 자택에서 사망, 051-645-4616

金茂相=지난해 11월 7일 아들 홍출군 결혼, 051-744-0379, 011-9304-0379

金炳泰=(자택이사)부산 북구 만덕3동 216-7번지 그린코아아파트 203동 1002호 051-937-

어디서 무엇을

1709

金倫澤=(자택이사)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193번지, 064-764-5577, 016-552-1961

金貞洙=3월 2일 부친 별세, 051-624-1343, 016-585-4609

朴炳祚=2월 9일 모친 별세, 051-364-0729, 019-588-7044

徐子潤=(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619번지 롯데낙천대 1차아파트 101동 503호 051-523-5477, 011-558-5477

安康泰=대선조선(주) 대표이사, 2월 22일 장모별세, 051-419-5050, 011-591-0135

千同祚=1월 22일 부친 별세, 055-362-1185, 010-6660-1187

黃潤浩=지난해 11월 16일 사망

제12회

金相熙=3월 6일 올림픽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金石用=(자택이사)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5-2번지 석봉부영아파트 709호 802호 055-332-3280, 011-9237-3290

金鐘聲=동아대학병원 심장센터 소장, 3월 4일 코모도호텔에서 정년 퇴임식

金準鐵=동기회장,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이사장 취임(3년임기)

金顯燦=2월 20일 롯데호텔 장녀 결혼

嚴泰燮=동아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월 26일 남태평양호텔에서 정년 퇴임식

尹星熙=912-Dennis-Drive PALO ALTO, CA 94303-3510, (자택)650-856-8786, (핸드폰)650-906-9613

張東錫=부경대학교 부총장, 2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정년 퇴임식

鄭棟植=(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169번지 대동이 미지타운 110동 501호, 055-362-4145

許垠道=(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2373번지 동일 스위트아파트 2차 105동 104호, 055-363-2448, 010-8975-2448

'300차 깃발' 금정산에

둘들산우회 40여 명 감격의 산행 후 산신제

둘들산우회(제22회 등산 모임)가 1993년 10월 첫 산행에 나선 이래 12년여 만에 300차 등정의 깃발을 꽂았다.

둘들산우회는 구립 19일 금정산에서 이상협 명예회장과 김동욱 동기회장, 손용섭 산우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0차 등정기록을 세우고 나비바위에서 동창회 발전과 용마가족 및 산우들의 평강을 비는 산신제를 올렸다.

둘들산우회는 93년 10월 14일 금정산에서 제1차 산행의 깃발을 휘날린 후 낙남정맥 완주와 지리

산 종주 등 국내 유명산을 두루 오른 뒤 이날 300차 기념산행의



둘들산우회 용마가족들이 금정산에서 300차 기념 산행을 하고 나비바위에서 산신제를 올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천산에 '용마깃발' 휘날리며

본부 용마산악회 제19차 등정 100명 참석

본부 용마산악회는 지난 3월 13일 전북 순창의 강천산(583m)에서 제19차 산행대회(올해 첫 정기행사)를 열었다.

정준수 회장(15회·부산대 교수)의 총지휘로 이뤄진 이날 산

행은 용마가족 100명(가족 13명 포함)이 참석했다.

일행은 오기현 산행대장 리드로 매표소-깃대봉-왕자봉-구름다리-전망대(신선봉)-매표소 코스에서 봄기운을 만끽했다.



본부 용마산악회 동문·가족들이 백설이 쌓인 강천산(전북 순창) 등정에 앞서 주차장에서 장비점검을 받고 있다.

재경제14회 전력 과시

3-5 반창회 초대회장 김익명

제14회재경동기회 친목회들이 노익장을 과시하듯 열정을 쏟고 있다.

서울 거주 3-5반 동문(김익명 김태희 남창희 조광명 이상동 이문기 천광열 최낙섭)들은 지난 2월23일 오후 7시 동기회관 뒤 K식당에서 졸업 45년 만에 만나 삼오반창회 창립총회를 열어 김익명 동문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참석자들은 격월제로 모이고 동문찾기운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경비는 조광명 동문이 전액 부담했다.

2월 당구 우승 김영주 차지 송죽회 연내 부부 해외여행

당구회(회장 오정철)는 지난 2월 19일 동기회관 뒤 재즈당구장에서 2월 대회를 열어(춘천에서

범이사~북문~산성마을 일오산우회, 제227차 등정

일오산우회(제15회 등산 모임)는 지난 2월 20일 금정산에서 제227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날 산행은 총지휘를 맡은 김황영 회장을 비롯해 13명이 참석, 강인조 산

감격을 누렸다.

일행은 하산 후 자축행사를 제일룡 직전 산우회장이 운영하는 남포동 어부야에서 가졌다.

앞으로 산우회는 백두산과 인도네시아 코타키나바루 등 원정 등반에 나설 계획이다.

온 김 공 동문 등 23명 참석) 우승은 김영주·준우승은 이상동 동문이 차지했다.

송죽회는(회장 황원제) 같은 달 16일 오후 7시 논현동 토담골에서 부부동반 정례회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동문 8명·부인 7명 참석). 이날 부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못이겨 올해 부부 해외 나들이를 하기로 했다.

낙석회 신임회장 김영주

1~2월 바둑 우승 서정환·박철수

낙석회(회장 김영주) 지난 2월 20일 동기회관에서 2월 바둑 대회를 열어 우승 박철수·준우승 조용준 동문이 차지했다.

앞서 낙석회는 지난 1월 30일 같은 장소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김영주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뽑고 배남순 총무를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는 봄철 14K바둑대회를 4월에 열고 부산낙석회 초청 대회는 5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날 대회는 프로 5단인 백홍수 동문을 비롯해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전을 벌여 우승은 서정환·준우승은 김형수 동문이 차지했다.

행대장의 리더로 범이사 계곡~북문~미륵암(잠시 휴식)~옛 천주교목장 앞-산성마을 코스에서 발품을 팔았다.

허심청에서 온전옥을 한 일행은 명성공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강 대장이 쾌척한 금일봉으로 생맥주 파티를 즐겼다.

동문이 펴낸 새 책

(대한민국 八字 좀 고쳐봅시다)

박종국 (26회) 지음

박종국 동문(26회·해양수산부 유통기공과장)은 공직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팔자론(八字論)을 주창, '대한민국의 팔자' 즉 '국운'을 진단한 <대한민국 八字 좀 고쳐봅시다>와 <우리 八字 좀 고쳐봅시다> 등 두 권의 팔자관련 책을 실송암(雪松岩)이라는 필명으로 최근 펴냈다 (진한 M&B 발간·각 권 9천원).

<대한민국 八字 좀 고쳐봅시다>는 세계적 역사학자 토인비가 음양순환 역사관을 도입한 것을 예로 들면서 역사의 흐름을 수·목·화·토·금의 오행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조선로부터 오늘날까지의 국운의 흐름과 근·현대사의 180년간의 흐름, 최근 60년간의 흐름을 오행의 순환법

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각각 분석,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오늘날 우리의 국운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제1부에서 '구한말과 오늘날의 시대 비교', '국운에 대한 시각' 등을 △제2부에서 '역사와 국운', '근·현대사 국운 흐름', '현대사의 국운' 등을 △제3부에서 '북한·주변 4강·한반도 운세' 등을 △제4부에서 '국력 통합', '국가 흥망의 법칙성' 등을 △제5부 음양오행의 제왕학에서 '흑백 논리 극복', '오행의 국정활용' 등을 다루고 있다. 일본 동경대학에서 수학한 박 동문은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후 공직생활을 시작, 청와대와 주일대사관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상고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공산우회 산행후기 제2권)

제30회동기회 펴냄

제30회동기회에서는 최근 산우들의 모임인 <삼공산악회 산행후기 기념집> 제2권(제101~200차)을 발간했다.

이번 산행후기 기념집은 지난 2002년 말 펴낸 제1권(2000.10.8 제1차~2002.9.30 제100차)에 이어 2년여 만의 쾌거이다.

특히 각 동기회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삼공산악회 산행후기 기념집>이 여태껏 각 동기회는 말할 나위도 없고 국내의 지역회·직능회 등 어느 조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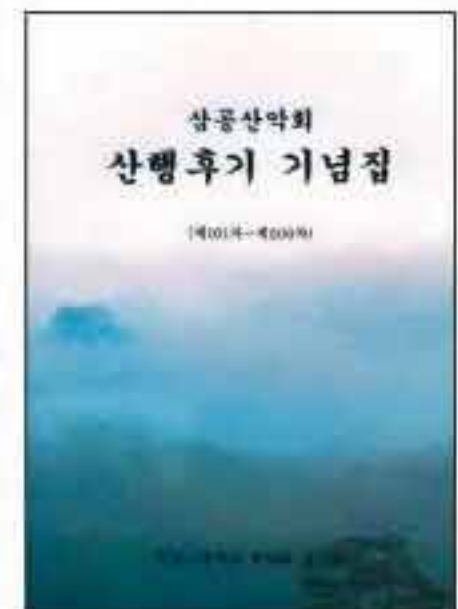
제2권은 제101차 산행(2002.10.6 달음산)에서 제 200차 산행(2004.10.3 금정산)과 차수 없는 영취산(02.12.19), 지리산(1차 :

03.5.23~25·2차 : 03.6.28~29), 일본원정산행인 한국악(韓國岳-03.12.31~04.1.3) 등 네 차례 산행을 한데 묶어 편집했다.

산행후기는 △일정 △목적산·고도·코스·리더 △참가자 △등반 내용·작성자·작성일시 등으로 꾸며져 있어 기록성과 당일 산행의 갖가지 모습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재미가 넘친다.

그리고 차수별 참가자 명단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며 최다 참가 10걸도 소개하고 있다. 10걸 중 1위는 문장호 동문으로 무려 90회나 참가했다. 이어 2위 정

용하(83회)·3위 장상현(75회)·4위 김우삼(74회)·5위 천성일·유찬열(이상 48회)·7위 왕순도(46회)·8위 김병섭(44회)·9위 손보현(43회)·10위 김삼직 동문(42회) 순이다.



어디서 무엇을

<5면에서 받음>

제13외

孔漢局=1월 30일 하모니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김민철=3월 5일 벅스코에서 장녀 결혼

車英一=동기회장.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삼익아파트 1동 203호. (자택)051-243-1682. (사무실)051-246-2131

제15외

朴昭男=(자택이사)부산시 북구 화명2동 도개공 그린아파트 110동 806호

李陽春=(자택이사)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59-60. 052-264-8568. 011-3264-8568

吳世昌=2월27일 하모니 웨딩타운 4층 미뉴엣실에서 장녀 정화양 결혼

周倫卓=경성대 예술대학 학장. (연락처변경)051-607-5181

제16외

姜東官=(주)해성 대표이사. 1월 23일 장녀 혜인양 결혼

金光勇=부일신경외과 원장. 1월 15일 차녀 현정양 결혼. 051-201-3008

金武浩=2월 5일 모친상. 051-626-8618

文亨植=(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롯데4차아파트 506동 2304호

朴文奎=골목집 대표. 1월 16일 모친상

夫偉珍=3월 6일 폐암으로 타계.

宋圭政=(주)윈스틸 대표이사. 2월 19일 차녀 경은양 결혼

梁聖旻=(주)조광페인트 대표이사. 1월 22일 장녀 은아양 결혼

李相大=(주)인코인 경영고문. 1월 15일 장녀 보경양 결혼. 02-3462-0037

李成男=3월 8일 모친상을 언양보림병원에서 치름

李鐘得=광일페인트 대표. (자택이사)부산시 진구 전포2동 롯데캐슬아파트 103동 3202호. 051-818-6302

鄭泰拾=(자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222동 403호

崔尙三=(자택이사)울산시 남구 달동 873-12번지. 011-588-6173.

제18외

金石=하동군의회 전문위원. (사무실)055-880-2942

(자택)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21-92. 055-883-2109. 019-583-2109. (e-mail) kimsuk@hadong.go.kr

姜永鎬=부산개성고등학교 교감. 051-897-7356

權敎七=부산 강서구 구서2동 1008-16. 051-516-5327

金敬傑=동원철강상사 대표. 051-757-2945

金基箴=부산 금정구 부곡동 360-3. 051-513-2709

金炳旭=부산 사하구 괴정2동 양지연립아파트 라동 207호. 051-292-8280

金思權=동기회장. 부산경찰청 보안과장. 051-851-5800

金聖洙=부산 사하구 괴정1동 화신아파트 5동 306호. 051-204-2273

金永一=동은병원 병원장. 055-384-7575

金正來=부산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 051-853-0951

金洪柱=2월 19일 대구 르네상스웨딩홀 2층 르네상스홀에서 장남 태정군 결혼

盧整圭=3월 11일 천주교 역삼동 성당 아들 은석군 결혼

朴東午=부산모동중학교 교감. 051-303-3922

<7면에 계속>

재경 경팔회 봄기사가

골프 노재복·바둑 전영배 우승

재경 경팔회의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2월 네 차례에 걸쳐 관악산(26일-19명), 수락산(19일-10명), 도봉산(12일-17명), 북한산(5일-12명)을 올라 봄을 추스렸다.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3월 3일 안성CC에서 제136회 월례대회(15명 참가)를 열었다. 남자부=우승 노재복(81타·-5)·준우승 홍기성·3등 조운제·니어리스트상 김영길·행운상 박재병 동문. 여자부=우승 정종옥(93타·-3)·니어리스트상 전은희씨.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3월 5일 오후 1시 30분 한일기원(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서 50m 거리)에서 이유환 최대영 신현국 손대근 전영배 이창근 배주원 동문(도착순)이 참석한 가운데 신춘대국을 벌여 전영배 동문이 우승을, 신현국 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열회 3월수업 열심히

사니조아 용마산·영장산 올라

경열회(재경 10회) 8개 모임이 3월 수업시간표대로 봄나들이를 즐겼다.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26일 오전 11시 회장 사무실에 모여 신춘대국을 벌였고, 일산금요회(회장 손 정)는 25일 정오 일산 주엽역 근처 마라도에서 회식을,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24일 정오 자유CC에서 라운딩을 즐겼다.

강남화요회(회장 김해룡)는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초기왓집순두부에서 단합회를,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20일 영장산과 5일 용마산을 올랐고, 정우회(회장 최형백)는 17일 오전 11시 관문 테니스장에서 기량을 겨뤘다.

분당토요회(회장 정상수)는 19일 오후 5시 30분 분당기왓집순두부에서, 안산화요회(회장 박칠민)는 8일 오후 12시 30분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 옆집에서 각각 모여 단합을 확인했다. 강북화요회(회장 강재환)는 쉬었다.

제15회 서클별 봄맞이

이화회 등 2월 정례회

제15회동기회 친목회인 이화회(회장 박 용)와 의약회(회장 유경수)는 15일 오후 7시 각각 미라정과 부산희식당에서, 가람회(회장 김중광)는 11일 오후 7시 죽마고우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일소기우회 신년회 열어

일소기우회(회장 이승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O/T 동기회관에서 신년회(18명 참석)를 열어 우정을 확인했다.

이날 모임은 제1부 바둑·마작·장기대회로 유대를 강화했고 오후 6시부터 한가위에서 제2부 단합회가 열렸다.



<6면에서 받음>

- 朴相郁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과 교수. 051-510-2393
朴淳正 부산영남중학교 교사. 051-265-4332
朴精吉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롯데아파트 7동 803호. 051-743-0064
裴世元 부산중학교 교장. 051-464-201
徐且守=부경대학교 화공과 교수. 051-620-1563
柳鐘又=부경대학교 건축과 교수. 051-620-1396
陸炳奎=수영구망미1동 로얄아파트 101동 1007호. 051-757-6339
鄭起龍=부산지산고등학교 교사. 051-580-2600
河榮一=부산다대고등학교 교사. 051-265-9804
黃正男=부산계성정보고등학교 교사. 051-503-8870

제20회

- 李鐘贊=춘천지방법원장 승진.
金朱耿=부산진구 개금 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취임 근무중. 051-891-1996
朴永學=3월 5일 사하구 동신교회에서 아들 신혁군 결혼. 011-861-4316
鄭海寧=중근당약국 대표. 3월 2일 모친 별세. 051-523-8356
趙允泰=좋은강안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2월 19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딸 재은양 결혼
許南均=현항공산업(주) 대표. 3월 20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아들 범군 결혼. 051-832-0270
黃明煥=필리핀 SUBIC에 서라벌그랜드호텔 오픈. 동문들의 홍보 및 이용 요망. 011-551-3018

제21회

- 金相德=2월 7일 모친 별세. 019-567-7515
權容孝=기장군청 세무과장. 지난해 10월 24일 장남 결혼. 017-856-8803
朴銘文=세무회계사무소(금정세무서 앞). 051-512-3200. 011-9554-4841

- 朴庠基=재경동기회장. 지난해 10월 14일 장남 결혼. 011-587-1160
邊聖仁=변치과의원. (사무실이전)사하전철역 부근. 051-293-1732. 019-580-1732
宋元炘=LG화재 송림대리점 대표. 051-469-6577. 011-874-3803
孫元祚=주택관리사. 011-201-3735
安采植=지난해 10월 14일 모친 별세. 011-893-9245
李 赫=(주)해동 대표. 지난해 11월 20일 장남 결혼. 051-941-1771
李英相=2월 10일 모친 별세. 017-586-4476
尹承根=신생화원 대표. 1월 29일 장남 결혼. 051-255-8494. 017-595-9125
全琪煥=해성병원 원장(반송동). 지난해 9월 30일 부친 별세. 051-545-3366. 011-868-2869
鄭翼株=(주)일산 부사장. (주)제이텍 사장 겸임 발령. 051-351-7891. 010-8309-8308
鄭採敦=금정세무서장. 011-9926-5325
河甲俊=수퍼경영(마산). 019-361-1386
韓大胤=현대중공업(주) 전무. 1월 21일 모친 별세. 055-230-2054. 011-9547-4100

제22회

- 金羽鴻=3월 20일 마산 리베라호텔 2층 예식홀에서 장남 재익군 결혼
李致佰=3월 20일 부산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차녀 주현양 결혼

제24회

- 문휘영=(주)평화티.씨.엠 대표이사.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3동 경남아파트 6동 706호. 2월 25일 부경대학교 건설관리공학박사 학위 수여

제26회

- 金鐘洙=남산고등학교 교사. 018-239-8948
金太勇=CP기획. (사무실이전)부산 금정구 남산동 976-6번지 원재빌딩 4층. 016-865-0109
金賢壽=(자택이사)부산 중구 신창동 1가 2번지 중앙아파트 401호. 010-4635-5099
徐基錫=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3회

- 金鎮一=김진일한의원 원장. 경남교 야구부 4명에게 한약기증. 051-334-5329~30

제35회

- 金炳秀=김병수의원 원장. (사무실)055-884-0760. (자택)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대망아파트 가동 311호. 055-883-6534. 019-368-8139. (e-mail) kbs1212k@hanmail.net

제41회

- 金云漢=서울고등법원 판사
洪昌佑=서울가정법원 판사

제43회

- 白昇輝=울산지방법원 판사.

신들린 듯 한마음 되어

전남 광양의 백운산 기슭 바위산장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전남동부지역동창회 단합회에 참석한 제33회 용마가족들이 헤어지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족자리

김미정

이명식 동문(제33회) 부인·전남동부지역회

아직도 겨울이 끝나지 않은 2월 중순. 용마가족들은 옥룡백운산 자락 바위산장에서 1박 2일 동안 단합회를 즐겼다.

고로쇠물이 나는 2월, 아담한 토담집을 개조한 황토방의 아랫목은 지글지글 끓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고로쇠 물을 마시면서 편안한 가족적 분위기의 경남교 동창회가 전라도 광양 땅 겨울밤에 무르익고 있었다.

흰 머리가 소복이 내린 어르신에서부터 이제 흰 머리가 자리를 잡고자 아우성치는 나의 남편까지 다양한 인격체들이 공동운명체임을 공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호칭은 선배님 또는 후배님이라는, 눈치보거나 아부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너그러운 밤이었다.

나 역시 여러 부인들과 일상

적인 정담을 나눴으며 부드럽고 달콤한 고로쇠물을 마시면서 물어 두었던 '여자들만'의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아이들은 아파트의 정해진 공간에서 놀다가 자연과 함께한 산장의 밤 분위기에 추운지도 모르고 이 방 저 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마냥 즐거워했다. 참으로 바쁜 일상의 내 남편에게 있어 이 날은 너무나 여유롭고 편안해 보여 나의 마음도 호뭇

했다. 왜 남편이 이 모임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교가와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에서 그것은 거기에 있는 선배배 간의 따뜻함과 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 좋았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신 정철기 선배님과 임원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늘 건강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제26회

- 李廷國=(자택이사)울산 북구 염포동 성원상떼빌 114동 2504호. 016-856-5503
鄭守和=(자택이사)부산 금정구 부곡2동 대우아파트 103동 1902호. 051-517-6270
崔明海=(자택이사)부산 사하구 장림1동 875번지 동원로얄아파트 117동 1301호. 011-831-8937

제28회

- 朴光洙=농업기반공사 농공기술실장으로 승진. 031-400-1718. 016-351-7129
朴鐘琪=1월 26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주) 홍보실 이사로 승진
宋承基=1월 24일 (주)대한전기 서울사무소 개설. (사무실)서

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26-5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II 1415호. 02-867-8420 (FAX)02-867-8477 011-9975-7679

李承普=1월 1일 팬택 C&I 대표이사 취임. (사무실)02-3215-7703. (자택)02-567-5487 011-265-9104

吳亨權=1월 27일 멀티플랜 디자인. (사무실)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2417호. 02-3411-5507. (FAX)02-3412-5507. 011-9438-5500 (홈페이지)http://www.multiplan.name
趙炳顯=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9회

金起榮=LG정유 영남제주지역본부. 051-607-7260. 019-523-9522



- 朴性哲=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051-590-1114
徐英鶴=부산진세무서 조사2과 051-461-9592
李石祚=노스페이스 서면점 051-819-9090
宋熙泰=포스코건설. (사무실)061-798-5460. (자택)전남 광양시 금호동 동백아파트 7동 205호. 011-1760-0037. (e-mail) songht@poscoenc.com

제30회

金湘植=MCQAN, 부산 사상구 감전동 벽산디지털밸리 1014

- 호. 051-329-8999
金榮玉=농협 재송동지점. 051-783-3819
金旭成=해양수산연구원. 051-419-7146. 019-538-2336
朴元虎=동울산신경외과·정형외과. 052-233-8172
愼玟培=동울산신경외과·정형외과. 052-233-8172
林奎榮=최고급 명란젓 판매. 011-596-5075
崔明燁=에본성형외과(부전동). 051-816-3636
최상호=최상호성형외과(남포동). 051-246-6661
崔仁根=동의과학대학(구 동의공업대학) 자동차학과. 051-860-3263. 017-554-3263
崔昌勳=무원한의원(부평동) 051-242-1025

경야회 활성화 '점화'

5월 22일 가족동반 등산대회 열기로 정문종 등 3명 기금 300만원 쾌척



지난 2월 18일 부산 서면 이대감집에서 열린 경야회 2005년 정기총회.

경야회는 지난 2월 18일 오후 7시 서면 영광도서 앞 이대감갈비집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이용규 동문(22회·부산서부터미널<주> 감사·사진)을 선출,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올해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5월 22일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9~10월 중 기별대항야구대회를 주관하며 11월 중 OB-YB전을 치르기로 했다.

기별대항 야구대회는 개막식이어 가족체육대회를 여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정문종(35회) 동문 등 3명이 경야회 발전기금 300만 원을 쾌척,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용규 회장 등은 지난 3월 5일 모교를 방문, 권명미 교장에게 야구부 선수 강훈비 등으로 100만 원을 전달했다.

△회장=이용규(22회) △부회장=김두천(26회·수석1)·김용희(28회·수석2)·이민성(22회)·최영관(25회)·김동규(28회)·이무환(30회)·박상국(33회)·정문종(35회)·윤동배(39회) △감사=조흥기(22회)·황성동(24회) △총무=배기용(27회·수석)·백홍문(33회) △재무=이충원(29회).



장) 등 45명이 참석, 결산·예산안과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5월 22일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9~10월 중 기별대항야구대회를 주관하며 11월 중 OB-YB전을 치르기로 했다.

기별대항 야구대회는 개막식이어 가족체육대회를 여는 등 활

신임회장에 이용규(22회) 선임 모교에 선수강훈비 전달

박문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이길상 고문(6회·동기회

회성그룹 회장인 구본능(21회) 경구회 고문 이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증한 최신 일체 피칭머신기.



모교에 피칭머신기 기증 경구회, '야구중흥' 불씨 지피

구본능(21회) 고문·허구연(24회) 회장 등 앞장서 마련

경구회(모교 야구선수 출신 재경 동문 친목회)는 최근 경남고 야구부에 1천200만 원짜리 최신형 피칭머신기(일본 사키사 제품)를 기증했다.

이 피칭머신기는 구본능 경구

회 고문(21회·회성그룹 회장)과 허 회장이 앞장서 마련한 것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촉진하고 전국대회에서 명성을 떨치는 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경덕 등 3명에 본부 용마장학금 경남중 제62회·경남고 제59회 졸업식

모교 경남중·경남고 2005년도 졸업식이 각각 학교별로 열렸다.

경남중은 지난 2월 17일 오전 10시 학교 체육관에서 김철곤 교장(16회) 주재로 제62회 졸업식을 거행, 329명의 용마를 새로 배출했다(졸업자 총 3만1천587명).

이날 졸업식은 교직원·재학생·학부모와 정행권 본부동창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동문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철곤 교장은 조인성 군(종합 최우수상) 등 205명에게 대내상을, 정행권 본부회장은 이동근 군에게 동창회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대외상(15명) 중 학교운영

위원장상은 구원근, 경문회장상은 신문평·예정부 군이 각각 받았다.

경남고는 같은 달 18일 오전 11시 학교 운동장에서 권명미 교장 주재로 제59회 졸업식을 거행, 새로운 용마 398명을 배출했다(졸업자 총 2만8천992명).

이날 졸업식은 교직원·재학생·학부모와 정행권 본부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동문 등 1천 600여 명이 참석했다.

권명미 교장은 임경원(인문계열)·박예흠 군(자연계열)에게 학업최우수상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모두 40명에게 대내상을 수여했다.



지난 2월 17일 열린 경남중학교 제62회 졸업식(위)과 18일 열린 경남고 제59회 졸업식 모습.



정행권 본부회장은 구경덕 김지훈 정다솔 군 등 3명에게 용마 장학금을, 구경덕 군에게 동창회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박

예흠·백주현·김상준 군은 최성호(17회·최성호피부비뇨기과 의원장)장학금을, 김지훈 군은 연당장학금(5회 이종열 동문 유지파라 수여)을 각각 받았다.

또 대내상(12명) 중 학교운영위원장상은 정재석, 경문회장상은 권명수·백재민 군이 각각 수상했다.

경남중·고 2005학년 입학식

모교 경남중·고교 2005학년도 입학식이 각각 학교별로 거행됐다.

경남중은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김철곤 교장(16회) 주재로 제65회 입학식을 주재, 신입생 363명(10학급)을 맞이하고 축하했다.

경남고는 같은 달 5일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권명미 교장 주재로 제62회 입학식을 주재, 신입생 480명(12학급)을 새로 맞이하고 환영했다.

<경고학보> 2005년판 펴내 편집·내용 화려한 변신

경고학보



2005년판 <경고학보>와 <경남중소식>이 최근 발간됐다. 1년마다 펴내는 이들 학보는 책 판형과 내용, 편집테크닉에 큰 변화를 가져와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경고학보> 경우 이번 제48호를 맞아 책 판형을 종전 신국판(15×22.5cm)에서 46배판(19×26cm)으로 확대했고, 내용도 여러 가지로 기획돼 참신성과 다양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경고학보>는 스머릿말(교장 권두언·동창회장 격려사 등) △용마문춘 등 읽을거리가 풍성해 애쓰는 보람이 책 갈피마다 넘쳐나고 있다.

<경남중소식>도 발간

한편 <경남중소식>은 △표지 시(문) △송축사(교장 권두언 등) △영어랑 놀자(새내기 영어선생님의 영어정복기) △만화로 보는 2004년 최고 △학생 글마당 △사진으로 보는 용마축제 △학교를 빛낸 얼굴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제 22회동기회 집행부 명단

고 문

강봉기 강성봉 강윤범 구자룡
김만성 김영수 김영진 김원주
김종수 김학균 김도살 박성열
박언표 박재상 우덕현 유재진
이대선 이성모 이성철 이인준
장영근 허인석 황영환

명예회장 이상협

회 장 김동욱

부 회장

김일봉 김일준 김진영 노세현
박승목 변대석 변종호 손연모
송철규 안진환 이철웅 장무성
정상수 조봉국 조순태 주우실
한태길

이 사

강호일 강화목 권상준 금명환
김대욱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순협 김영철 김철호 박재인
박홍식 배춘식 서영훈 손병우

손봉용 손용섭 유명운 이상기
이상주 이정식 임성규 정갑열
최우현 최일용 최학봉 한군택
한창길 허효영

감 사 김병수

직 능 회

둘들골프회장 : 변대석
둘들기우회장 : 최일용
둘들누리회장 : 김성재
둘들산우회장 : 손용섭

총 무 단

재무이사 : 정도인
총무이사 : 조흥기
기획이사 : 손용섭

지 역 회

재경지역동기회
회장 이경상·총무 이재호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오세길·총무 민훈기
마·창지역동기회
회장 하성일·총무 강상대